

나주시, '2026년 농산물 가공기술 아카데미' 개강

6월 26일까지 총 7회 운영...



2026년 농산물 가공기술 아카데미' 기념 사진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농산물 가공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역량 강화와 가공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농산물 가공기술 아카데미'를 개강하고 본격적인 교육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한 가공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 15일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교육육성과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개최했다.

농산물 가공기술 아카데미는 농산물 가공에 관심 있는 농업인과 나주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오는 26일까지 총 7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공유주방 운영 실무와 HACCP의 이해,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 절차, 식품 표시 기준, 농산물 가공기술 및 제품 개발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무 중심 과정으로 구성했다.

특히 농산물의 단순 생산을 넘어 가공과 상품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중요해지는 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실제 창업과 제품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편성했다.

/서선택 기자

담양군, 호국보훈의 달 맞아 모범 보훈대상자 표창

화순군, '2026년 제1기 화순군 SNS 홍보단' 모집

담양군은 18일 군청 소쇄원실에서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범 보훈대상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중 지역사회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6명을 선정해 표창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훈에 감사를 전했다. 수상자들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 왔으며, 보훈가족의 권익 향상과 호국보훈 정신계승에도 앞장서 왔다. 담양군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예우 강화를 위해 매년 모범 보훈대상자 표창을 실시하는 등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SNS의 신속한 정보 전달과 높은 파급력을 활용해 군민 참여형 홍보를 활성화하고자 '2026년 제1기 화순군 SNS 홍보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화순군 SNS 홍보단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 채널을 활용해 화순군의 주요 정책과 관광, 문화, 축제 등 다양한 소식을 직접 체험하고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전자우편(sinii@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7월 10일(금)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우리 마을에서 시작하는 건강혁명"

보건진료소 중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본격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영광군청 제공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 건강검사와 사후검사를 통한 건강변화 모니터링 ▲고혈압·당뇨·뇌졸중·고지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 ▲구강·치매·금연·감염병 예방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연계한 신체 운동, 공예활동, 발마사지, 웃음치료, 노래교실 등 힐링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 향상까지 도모할 계획이다.

영광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예방 중심 보건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기 기자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7월 10일까지 모집... 총 시상금 160만 원 규모

장성군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한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군은 오는 7월 10일까지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일반기금사업과 지정기부사업 아이디어로 나뉜다. 지정기부사업은 자치단체가 미리 정한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이 구별되며, 선정된 사업을 기부금 모금 이후에 추진하게 된다. 장성군은 지금까지 '고향사랑 숲길 조성'과 '조정 꿈나무 경기장 지원'을 지정기부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공모분야는 △취약주민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다.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메일(js601480@korea.kr) 제출, 군청 총무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장성군 도시브랜드

/장성군 제공

두 가능하다. 1명이 최대 2건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이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건만 시상 대상이 된다. 군은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 총 8건을 선정해 10~50만 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

가 모여 지역을 더욱 활기차고 살기 좋게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를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에 적극 반영해 지역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재섭 기자

황토깻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